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반복과 순환을 통한 일상이미지 연구

- 본인의 콜라그래피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노 수 민

반복과 순환을 통한 일상이미지 연구

- 본인의 콜라그래피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노 수 민

인 준 서

노수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이 춘 옥 (인)

심 사 위 원 박 영 근 (인)

심 사 위 원 조 병 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인은 시간과 삶이라는 추상적 명제의 특성 안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삶’ 과 그것이 ‘일상’ 들로 이루어져 있음에 대한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인이 ‘일상’ 이라는 실체를 지각하기 전까지의 견해와 지각 이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시작한다. 하나의 삶을 구성하는 시간 중에서도 ‘일상’ 이라는 시간은 매 순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쌓여간다.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형체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단지 닳아 있는 생활의 패턴이다. 패턴을 양산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였을 때, 본인은 일상에 대한 집착에서 초연해진다.

이러한 관점으로 다채롭기보다 오히려 일정한 주기를 이루는 ‘일상’ 을 표상하는 단순한 패턴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에 대한 본인의 초연함을 포함하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단순화한 패턴과 그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미지로 드러낸다.

본 논문에서 본인은 ‘일상’ 이라는 논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리적 변화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는지 서술한다.

본인이 느낀 ‘일상’ 은 비슷하고 반복적이었다. 그것은 단조롭고 무한하다. 그 추상적인 일상의 형태를 한 줄씩 선을 긋는 행위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실’ 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새로운 판(版)의 형태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구성한다. 더불어서 상징적 의미의 실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특성과 본인의 견해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본인의 사고와 변화를 파악하고 결과에 관해 서술하며 그 의미를 분석, 정리함으로써 본인의 작업에 대한 이해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본인의 사고과정을 거쳐 형성된 화면의 구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관법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그 의미와 함께 조형적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작업 전개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작품의 내용적 측면	4
1) 일상의 철학	4
2) 반복과 순환, 그리고 패턴	6
① 실	6
② 시간 ; 자전거, 우산	8
③ 초연	11
2. 작품의 조형적 측면	15
1) 판 제작 방식과 상징적 의미	15
2) 떠냄과 찍어냄 ; 실리콘, 콜라그래피	19
3. 작품 분석	23
III. 결론	39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Through rout-ain,
160x210cm, collagraphy on silicon, 2016
- [작품 2] 傘(5piece),
2 piece 65x215cm, collagraphy, monotype on papaer, 2016
3 piece 65x110cm, collagraphy, chin colle on papaer, 2016
- [작품 3] cycle II,
110x80cm, collagraphy, stencil on paper, 2016
- [작품 4] cycle I,
110x80cm, stencil, transfer on paper, 2016
- [작품 5-1] cycl-ing,
35x35cm, collagraphy, transfer on paper, 2016
- [작품 5-2] cycl-ing II,
35x35cm, collagraphy, transfer on paper, 2016
- [작품 5-3] cycl-ing III,
35x35cm, collagraphy, transfer on paper, 2016
- [작품 6] rhombus circle,
35x35cm, silk screen, transfer on paper, 2016
- [작품 7] 차전거,
70x50cm, collagraphy, monotype on paper, 2016
- [작품 8] run-ing,
70x50cm, collagraphy, stencil on paper, 2016

[작품 9] circling(5 piece),

3 piece 28x43cm, collagraphy on silicon, 2016

2 piece 28x43cm, collagraphy on urethane resin, 2016

도 판 목 차

[도판 1] 실로 만든 본인의 판

[도판 2] 실로 만든 판을 찍어낸 이미지

[도판 3] 조각섬 , 159x88cm, collagraphy on silicon, 2015

I. 서론

언젠가부터 우리 ‘인간’은 ‘살기’ 시작했다. 산다는 것은 당연했고 그것은 시간과 함께했다. 인력이 작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자연 안에 소속되어 인간의 삶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명확한 시작과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하나의 삶에 시작됨이 있고 끝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태어남, 죽음이라는 일생에서의 변화가 있을 뿐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시간은 존재하지만 규명할 수 없다. 인간은 그 안에 포함되어 한 걸음씩 발자국을 찍어내 개인의 ‘삶’이라는 흔적을 남길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한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에 대한 ‘존재 이유’에 물음을 던지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삶이다. 삶이란 사는 일, 또는 살아있음을 말한다.

모든 인간은 살아있고 살고 있다. ‘삶’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개인은 매 순간 중요한 기록을 남긴다. 이는 잘살고자 함이고, 잘 살았노라 말하고자 함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잘살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일상을 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철학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철학적이며, 그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철학적 사고를 한다. 자신의 삶을 통해 겪게 되는 사건들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곧 철학함의 출발점이 된다.

야스퍼스¹⁾(Jaspers, Karl 1883~1969)는 그의 저서 『철학 입문』에서

인간은 누구나 철학함의 동기를 가진다고 보았다. 우리는 ‘경이감’ (Staunen)으로부터 물음과 인식이 생기고, 다시 그에 대한 ‘의심’ (Zweifel)으로부터 비판적 검토와 명료한 확실성이 나온다. 또한, 외부에서 받게 되는 ‘충격’ 과 그것의 상실을 의식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²⁾ 즉, 누구든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을 하게끔 되는 계기를 겪게 된다.

본인은 ‘일상’ 이라는 익숙한 세계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려진 비슷한 패턴과 마주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끝마치는 저녁까지 서로 닮아있는 어제와 오늘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과연 ‘오늘이 오늘인가, 어제가 오늘이었던가?’ 혼란스러웠다. 그 충격을 계기로 본인의 철학이 시작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2016년 6월에 전시한 본인의 석사학위 청구 전시 작품들을 중심으로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상’ 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반복되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통해 추상적인 일상을 시각화하는 방법과 과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일상’ 을 향한 인식 변화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함이다.

인생에서 찰나의 순간들은 언제나 찬란하고 새롭다. 하지만 그 순간들의 반복은 수많은 빛이 모여 각자 저마다 빛을 띠면서도 하나로 합쳐진 모양으로 보인다. 즉 본인은 일상이 마치 시간의 흐름과 같이 자연적으로 쌓이는

1) 현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와 함께 독일 실존주의의 대표자로 불린다. 1921년부터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었지만, 1938년 나치 정권에 의해 교수 직위를 박탈당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복직되었다. 1948~1961년에는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있었다. 처음 정신병리학의 연구자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 내용은 그의 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야스퍼스 [Jaspers, Karl]’,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2) 강동수, 배상식, 「일상에서 철학으로」, 소강, 2013, p.22

것에서 오히려 단조로워지는 일상의 역설적인 형상에 대해 고민한다. 일상의 주체로서 매 순간을 점으로 찍어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선으로 뭉치게 된다.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형상은 일상이 쌓인 시간의 집합체이고, 그것이 단순히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었음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본인 작품의 조형적 근간이 되는 실이라는 소재가 주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특성과 그 실을 이용해 새로이 시도한 판 종(版種)이 주는 조형적 결합이 ‘반복적인 일상’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어떤 식으로 대변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더불어서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에 대한 고민과 그를 상징하는 사물인 자전거와 우산이라는 소재를 연관 지어 서술하고자 한다.

본인의 위의 사고를 바탕으로 실을 반복적으로 정렬하고 ‘판’의 형태로 제작해 그를 기반으로 상징적 이미지를 결합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조형적 측면에서 본인은 작업에서 주를 이루는 실과 실을 이용한 판(版) 제작 방식의 과정, 그리고 의미에 관해 서술한다. 실을 감는 행위와 그것을 반복하는 것, 판을 제작하는 자체가 본인이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통한다. 본인은 그 판(版)이 가지는 의의와 그 상징에 집중하고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사고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은 콜라그래피(collagraphy)³⁾ 형식의 기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실 판(版)을 이용한 기법과 이를 실리콘을 이용해 떠내는 방식이 주된 기법이다.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은 작업에 대한 이념을 확인 및 점검하고 조형적 구조를 분석하여 그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3) 나무판이나 하드보드지 등에 종이, 형짚, 나뭇잎, 핀 등 여러 가지 사물을 배치하고 잉크를 칠하여 찍어 낸다. 콜라주 판화라고도 하며, 실물의 재질감이 그대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측면

1) 일상의 철학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상이 없을 수 없다.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상은 당연하게 진행된다. 일상은 어찌 보면 시간이고 곧 그 사람 자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익숙해지고 마땅히 겪고 있는 것, 우리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본인은 어느 날 이러한 일상에 의문점이 생겼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생활이라고만 여겼던 일상이 어제든 그 전날에도 몇 달, 아니 몇 년 전에도 닳은 일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모양새였다. 매일 맞이하는 하루는 언제나 처음이고 새로운 일이지만 뒤돌아 다시 마주한 본인의 일상들은 닳아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이로움’ ‘놀라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철학을 하게끔 만든다고 말한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에 부딪혔을 때 놀란다고 하면서, ‘경이’ 에 대해 말하고 있다.⁴⁾

본인에게는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일상’ 이라는 게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그 ‘놀라운’ 순간이다. 일상이라는 친숙한 반복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4)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사랑, 2000, p.214

대한 불안함과 함께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삶’이라는 것에 초연함을 주었다. 어쩌면 선택하지도 않은 시간을 당연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일상의 실체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다채로운 하루하루를 꾸려나간다고 여겼던 일상의 모양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바뀌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것이 실제로 ‘완전히 똑같아서 신기하다.’의 의미가 아니다.

일상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하는 것, 일기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⁵⁾

어릴 적부터 ‘시간은 금이다.’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떠올리곤 했던 본인은 하루를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보내는 과정이 삶을 위해 마땅하고 그것이 본인의 삶에 충실한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막상 마주친 본인의 지난 일상들은 어쩌면 본인의 의식보다 멀리서 무의식적으로 그저 흘러갔을 뿐이었다. 적극적인 주체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본인의 삶이 사실 커다란 공간 안에서 비슷비슷한 구역을 만들며 마치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는 중일뿐이라고 느꼈다. 어린 시절에 햄스터가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발을 굴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던 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에 큰 변화를 주었다. 삶에 있어서 자꾸만 깊게, 더 작게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려고만 했던 본인에게 일상을 한 발짝 물러나서 보는 기회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소소하고 익숙한 일상이라는 것을 그의 속성에 맞게 세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꼈던 충격을 바탕으로 더 거시적으로

5) 김기전, 「일상생활의 의식적 건축」, 實生活, 1936, p.6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본인의 이러한 초연함에 대한 감정을 시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단순히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게 되었다.

2) 반복과 순환, 그리고 패턴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다. 본인에게 일상이란 ‘삶’이라는 커다란 형태를 그리기 위해 기꺼이 점을 찍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 순간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그것은 시간과 함께 간다. 매일을 채우고 있는 그들은 반복되면서 쌓인다. 결국은 어제와 오늘은 닮아있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당연하고도 익숙한 일상을 도구라고 보았을 때, 그 도구들은 패턴처럼 일정하게 만들어져 쌓이고 있었다.

여기서 패턴은 일상의 루틴(routine)이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하나의 루틴은 기약 없이 반복된다. 루틴이 변화할 때 혹은 벗어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또다시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며 결국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턴을 구성한다. 본인은 그 패턴의 지속이 주는 막연함이 권태로웠다. 동시에 ‘삶’이라는 불명확하고 막연한 것을 지탱하게 하는 안정감이기도 했다.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의 반복적인 패턴을 깨달았을 때, 일상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범위에서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① 실

모이라이 Moirai (로마 신화에서는 파르카이 Parcae)

그리스 로마신화에 ‘실’을 다루는 세 여신이 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세 사람이 다룬 실에 따라 결정된다. 클로토는 생명의 실을 뽑아내고, 라케시스는 그 실을 나누어준다. 그리고 아트로포스는 생명의 실을 끊어버린

다.⁶⁾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더 있다. 1년째 생일을 맞은 아이가 돌잡이로 명주실을 잡으면 흔히 장수한다고 하는 것⁷⁾. 또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보이지 않는 실이 묶여있는데 그 끝과 끝이 각자 운명의 상대와 묶여있다는 설화⁸⁾나 부부의 연을 결정짓는 노인이 청실과 홍실을 각자의 짝에 묶는다는 설화⁹⁾도 있다. 설화일 뿐이지만 이 모든 것이 외부에 존재하는 어떠한 힘으로 일어나는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실’은 ‘생명’이거나 ‘연(緣)’을 상징하는 소재로 표현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실의 모양과 성질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실은 옷과 같은 섬유 간의 연결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가느다란 실을 바늘에 꿰어 두 갈래의 천을 포개어 몇 번 감으면 두 천은 실에 의해 연결된다. 이러한 특징이 설화에서 ‘인연(因緣)’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실은 끊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 물리적으로는 처음 보이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이 언젠가 끊어져 버린 것이라면, 그것의 진정한 시작점은 알 수 없다. 또한, 실은 연약하고 유연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구성할 수 있고 서로 얽히기도 하며 그것의 변형은 무궁무진하다. 실은 평범하고 익숙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이면서, 그 자체로 단조롭고 상투적이다. 이러한 실의 속성은 일상이라는 지속적인 면서 추상적인 무형의 형태를 시각화하기 위한 소재로 비추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운명’이라 칭하는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인 굴레를

6) 차기태, 「미술작품을 곁들인 에피소드 서양문화사」, 필맥, 2014, p.65

7) 김지영, 김문진, 「규방공예:오방색실과천으로잇는천년세상」, 컬처라인, 2000, p52

8) 오즈이치, 「실중 홀리데이」, 학산문화사, 2015

9) 신노윤, 「연애의 각인」, 로맨스스토리, 2014

보호막 삼아 스스로 주체의 역할을 덜어내고자 한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그에게서 회피한다. 본인이 ‘일상이 그리는 패턴’을 발견했을 때의 감정변화가 그러하다. 하지만 본인은 필연적인 힘과 동시에 일상을 상징하는 소재로 ‘실’을 이용해 그것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존재하고자 한다. 즉 일상이라는 점(순간)들이 모여 이룬 선이 ‘실’이고 본인은 그것을 다루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을 반복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작품은 그것을 다루는 본인으로부터 시작된다.

② 시간

본인은 어릴 적부터 ‘시간표 짜기’에 공을 많이 들였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방학 숙제로 자주 내주셨던 동그라미를 바탕으로 시계처럼 칸을 나눠 하루의 일정을 짜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자라면서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는 등 본인의 시간을 쪼개는 계획을 세우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다.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땅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었기에 닳은 정해진 내일을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것이 ‘삶’의 일부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본인의 내일을 기획하고 삶에 변화를 찾아 나서는 일이라 생각했으나 결국 하나의 패턴을 순환하게 하는 일이었다.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시침은 모래시계에서 모래의 양처럼 단지 시간의 지남을 상징할 뿐이다.¹⁰⁾

본인이 주도한 계획표들은 단지 시간이 지나 가버린 일상을 결과로 내놓았다. 시계가 시간에 따라 한 칸씩 움직이듯 매 순간은 시간으로 하나씩 쌓

10) 미하엘 비트쉬어 저, 문성훈 역, 「철학 오디세이 2」, 2006, 현실과 과학, p.225

이고, 결국 일상이 됐다. 어제의 패턴을 밟고 오늘의 패턴을 세우는 마치 구조물을 쌓는 것과 같은 순환이었다. 무의식은 시간 순으로 일상을 쌓아 ‘삶’이라는 건축을 하고 있었고, 결국 일상은 구조적인 형태로써 형상화된다.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환(회전)하면 원이 그려진다. 하나의 점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회전을 계속할 때 원이라는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은 시계 침이 시계 중앙을 기준으로 도는 모양과 같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원의 형태에 ‘순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계로 표상되는 형태로 볼 수 있고, 또는 동그란(순환하는) 형태의 무엇인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동그란 형태들은 중심의 위치에 따라 겹쳐지기도 하고 서로 맞닿기도 한다. 반지름이라는 길이만큼의 힘을 유지하고 하나의 점이 회전을 수반하는 형태라고 보았을 때, 원은 균형을 이루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조적인 특성을 내포한다고 생각했다. 본인에게 일상이 주는 이미지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순환하는 형태를 지닌 것이었다.

본인은 생활반경이 대부분 가까운 동네 안에서 그쳤다. 덕분에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본인의 반경 안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었다. 자전거는 본인에게 대단히 친숙하고 익숙한 대상이었고 자연스럽게 자전거는 자유로운 본인 일상의 일부였다. 그 때문에 바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거나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일이 잦았다. 비단 자전거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이따금 보이는 리어카 등 바퀴들의 움직임은 일정하게 회전을 한다고 느껴졌다. 바퀴는 본인이 생각하는 순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시계의 침들이 회전하듯 순환한다. 그중에서도 자전거는 ‘바퀴살’이라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다. 바퀴살은 규칙적이며 그것의 순환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게다가 바퀴가 순환하면서 바퀴살의 형태는 흐릿해진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본인의 자전거는 구조적인 형태의 일상이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순환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외발자전거의 형태는 바퀴가 두 개인 일반적인 자전거보다 원이라는 형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외발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정함과 동시에 균형을 잡았을 때의 안정감을 표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했다. 본인은 이러한 자전거의 형태적 특징에 착안하고 이를 단순화한 형태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자전거로써 존재하는 형상이 상징적 소재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산의 형태에 착안하였는데, 그것의 의미는 자전거와는 사뭇 다르다. 우산의 살들은 원이라는 형태 안에서 안정적인 순환을 가지는 자전거와 다르게 하나의 지점에서 뻗어 나가는 형태의 살을 가졌다. 그것을 기반으로 구성된 우산의 형상은 일그러진 반원으로 보이기도 하며 가림 막의 형태로 비치기도 한다. 또한 ‘바퀴’ 라는 부분에서 출발한 자전거는 ‘움직임’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우산’ 이라는 사물은 일반적으로 비로부터 젖는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본인에게 그것은 수동적이고 정적인 사물로 보였다. 자전거와 우산은 ‘살’ 이라는 구조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반대의 성향을 내포한다. 이러한 자전거의 동적인 순환과 우산의 수동적이고 정적인 특성에 집중했다.

본인은 일상이 무의식적이고 필연적인, 시간이라는 무한한 공간 안에서 반복적으로 쌓이는 형태가 마치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적인 순환을 의미하는 바퀴에서 출발한 자전거의 형태는 순환을 의미하며 본인이 만들어낸 ‘일상’ 이라는 패턴(실) 안에서 일정하게 움직이거나 자유로운 움직임을 상징한다. 또한, 수동적이고 정적인 구조물을 상

징하는 우산의 실루엣 역시 본인의 ‘일상’ 과 함께 공존한다. 비가 오는 날 우산 아래는 온전히 혼자만의 공간이다. 수동적이지만 묵묵히 존재하는 마치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 우뚝 솟아난 하나의 점과 같았다. 이는 본인이 무의식적이고 필연적 힘을 가진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삶’ 이라는 건축을 위한 일상을 실행하고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본인은 일상의 주체가 되고자 ‘실’ 을 활용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이루어낸 일상을 의미로 실을 이용해 판을 만들고 그 안에서의 동적, 정적인 특성이 있는 사물들의 조합을 통해 본인이 새롭게 이루어낸 일상의 한 단면을 표현하고자 한다. 즉, ‘무의식적 일상’ 을 의식적으로 주체가 되고자 함으로써 구성하게 된 본인의 일상에 역시나 일상적이었을 뿐이었던 사물에 상징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조합해 ‘나만의 일상’ 이라는 공간을 시각화한 형상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본인은 ‘일상’ 이 ‘시간’ 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고 ‘일상’ 의 균형을 무너뜨렸을 때, 그것이 깨져 사라지거나 탈바꿈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원을 돌던 주체가 또 다른 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본인에게 일상에서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의식의 변화를 주었고, 작업을 통해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시도를 거듭할수록 인지할 수 없는 대단히 커다란 필연적인 무엇인가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본인은 그것이 어쩌면 의식적으로 초연할 수 있을 때 도달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했다.

③ 초연

“자네, 괜히 사람들 마음을 들쭉시키지 말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억누르면 가라앉고 부추기면 올라가는데,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이에 사람들 마음은 마치 옥에 갇힌 죄수나 사형수와 같지. 부드러움으로 굳센 것을 유연하게 만들고, 모난 것은 쪼거나 갈아내야지.....”

- 『在有재유』, 장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일상'은 시간의 흔적이고 삶의 과정이다. 본인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단순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또한, 그 반복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은 삶에 대한 무력감을 주었다. 그래서 일상이 패턴으로 순환하고 있음을 처음 인지했을 때 본인은 그 패턴을 깨트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계획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가려던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거나 계획을 아예 바꿔버리려는 시도를 통해서 패턴이 깨질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일상을 짚어나가는 중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일상에서는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본인의 일상은 결국 또 다른 모양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간과한 것은 일상의 루틴은 생활을 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일상의 변화가 아닌 본인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패턴을 깨려는 시도가 단순히 반복을 끊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어떠한 인간도 '시간'을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실을 잇는 것도 무스비¹¹⁾

사람을 잇는 것도 무스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무스비
한데 모아서 모양을 만들며 꼬아서 휘감고,
때로는 되돌리고, 끊기고, 또 이어지고.
그것이 실매듭.
그것이 시간.
그것이 무스비
-영화 '너의 이름은(2016)' 중에서

시간은 자연적이다. 자연은 스스로 혹은 저절로 그러하다.¹²⁾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패턴은 어쩌면 스스로 그러하다. 이 말이 체념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이를 오히려 초연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한다. 어떤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일상'이라는 건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본인이 일상의 주체가 되어서 실을 이용해 만들어낸 판이 상징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자신의 일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의 차이라고 보았다.

내 젊음의 황금 같은 날들이여.
다가오는 내일은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가?
헛되이 그것을 바라볼 뿐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구나.
그러나 상관없는 일
운명이 가는 길은 항상 옳은 것이니

11) むすび. [고어] 만물을 낚는 신령. 맺음;매듭, 끝맺음;결말, 구말·문말을 위에 쓴 말과 호응시키는 일
12) 박원재, 「21세기의 동양철학」, 을유문화사, 2005, p.208

운명의 화살이 나를 쓰러뜨린다 해도
또 나를 멀리 데리고 간다 해도
나는 상관없는 것을¹³⁾

본인의 논점이 운명론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운명론은 악과 고통을 비롯한 세상만사가 예정과 필연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운명론은 반드시 체념의 삶으로 이어진다.¹⁴⁾ 본인은 일상이 패턴을 이룬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패턴에 체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패턴을 주체로서 이끌어나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며, 동시에 본인이 일상에서 받았던 감정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 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 『어린왕자』, 생 텍쥐페리

본인은 일상을 본인을 벗어난 시선에서 바라보고자 했고, 그 모습은 단조로워 보였다. ‘삶’이라는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쌓는 단순한 패턴이 단순한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삶’의 형태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을 반복하고 그것을 이용한 또 다른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 그것이 객체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형상을 의미한다. 동시에 패턴을 만들어 낸 주체로서 그것을 변형, 가공하는 본인의 역할이 ‘삶’의 초연한 주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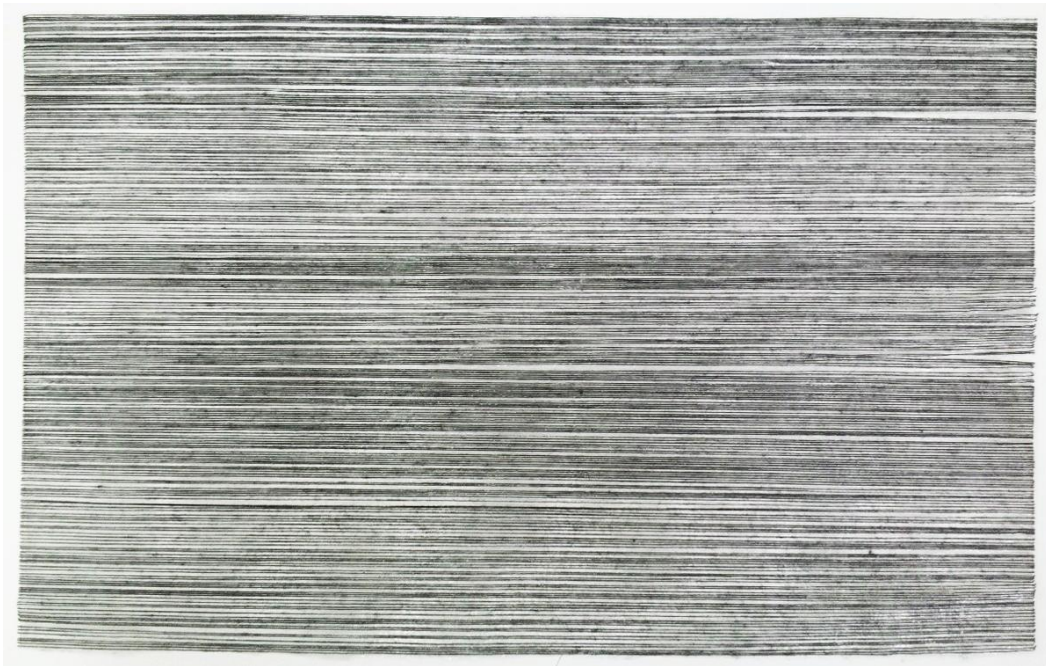
13) 진희숙, 「클래식 오디세이」, 청아출판사, 2014, p.64

14) 랜디 알콘, 「악의 문제 바로알기」, 두란노, 2011,

2. 작품의 조형적 측면

1) 판 제작 방식과 상징적 의미

본인의 작업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실’로 만든 판(版)으로부터 시작한다. 본인은 그것을 단순히 ‘실 판’이라고 칭한다. 그것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실’은 순간에 점을 찍어나가는 본인의 시간을 의미하므로 그들의 응집은 시간의 쌓임을 상징한다. 그 판이 일상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내포하고 그러한 이미지로서 비치면서부터 ‘실 판’의 존재가치가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실’이란 얇고 가느다란 독자적으로는 미미하게 비춰지는 존재, 동시에 길고 끝없는 속성은 생명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도판 1] 실로 만든 본인의 판 : ‘실 판’

실을 한 줄씩 감는다. 언제까지 얼마나 감아야 끝인지 알 수 없다. 그 끝은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마치 내가 내 삶을 그려내듯... -2015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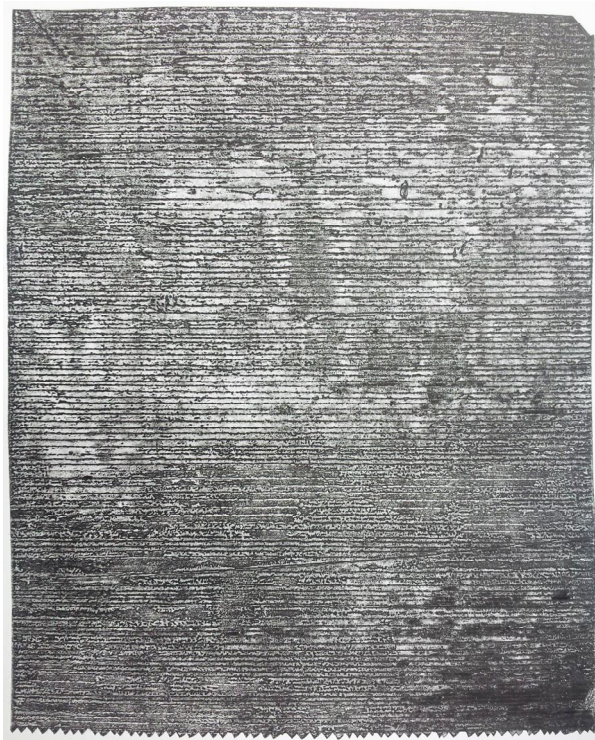


[도판 1] 부분 확대

본인 작품의 기본이 되는 ‘실 판’의 제작과정은 이렇다. 실타래에서 시작점의 실을 원하는 크기의 판(합판, 아크릴판, 우드락 등)의 모서리에 고정을 한다. 그리고는 그 판을 덮듯 한 방향으로 감기 시작한다. 그 판을 다 덮을 정도로 감은 후 정렬된 실에 곧바로 접착처리를 한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면 실이 감긴 두 면 중에서 한 면을 선택해 끊어내 떼어낸다. 그러면 실이 [도판1]의 형태로 접착제와 합쳐져 하나로 고정된 ‘실 판’이 온전히 떨어져 나온다.

본인이 판을 제작하는 과정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반복적으로 실을 감고 접착처리를 하는 것에 할애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도 본인이 바라본 반복적이고 기약 없는 일상의 면과 닮아있다. 실을 감아가는 본인의 행위는 생명이기도 시간이기도 일상이기도 한 그것을 한 줄씩 풀고 만들어가는 수행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실과 두 번째 실은 연결은 되어있으나 엄연히 실의 다른 부분이다. 실들은 반복하며

쌓여서 하나의 면을 이룬다. 본인의 일상이 이룬 삶 일부분이 패턴으로써 시각화한 형상이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밀집해있지만 그들의 간격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일상을 지내듯 닳아는 있으나 차이를 가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이 주는 미세한 차이만큼 접착제로 인한 차이가 생기는데 순수하게 ‘실 판’ 만을 이용해 찍어내면 [도판 2]와 같은 이미지가 나온다. 잉크가 묻어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본인의 행위에 있고, 이는 철저히 계산된 차이가 아니라 우연이 결합된 현상적 차이에 불과하다. 그것은 곧 삶에서 매 순간 맞이하는 ‘처음’이라는 경험이 시간이라는 공통적인 틀 안에 일상이라는 굴레로 묶이게 되면서 형성되는 패턴을 상징한다. 즉 처음의 순간이 주는 새로움과 그때의 감정변화를 ‘삶’이라는 눈으로 돌아본다면 그것이 본인의 판의 형상처럼 차이는 있으나 유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도판 2] 실로 만든 판을 찍어낸 이미지

또한, 접착제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판 자체의 내구성이 다른 판 종(種) (동판이나 목판 등) 들에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실 자체의 연약함과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접착제의 조합이 주는 결과인 이것 역시도 불완전한 일상과 그 일상의 반복이 주는 막연한 불안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일상을 대변하는 ‘실’ 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으며 그것이 앞서 설명한 주도적으로 형상화한 일상의 면이다.

본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판의 장점이 크기의 변화가 쉽고 그것의 변형도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본다. 판화가 가지는 고유한 ‘판’ 의 특성이 더 폭넓은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형요소에는 점, 선, 면이 있다.¹⁵⁾ 점은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은 면을 이룬다. 매 순간들을 점이라 보았을 때 그들이 이어져 선이 되고 그 선들을 모아 면이 되는 과정을 내포한다. 하나의 면을 구성하는 ‘선’ 을 일상의 순간과 반복, 그리고 그것의 쌓임을 포괄하는 의미로써 담고자 한다. 즉 선의 반복적 이미지인 ‘실 판’ 은 본인이 일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본인에게 일상이란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공간에 쌓이는 구조물이었다. 그 구조물들은 비슷한 모양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양이지만 본인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을 하나의 점들로 파악하고 그것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으로 쌓임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일상이라는 뜻이다. 실을 감는 매 순간 그 실을 똑같이 감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의 특성과 그것을 감고 있는 행위 자체에 있으며, 그 시간에 매일 새로 맞이하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닳아있는 일상이라는 의미를 대입한다.

15) 마이자(MY_JA),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상업 일러스트」, 도서출판길벗, 2015

본인의 일상이 존재하는 공간은 ‘시간’이라는 자연이므로 ‘시간’ 안에서 형체는 시간만큼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시간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자전거와 우산의 이미지도 최소한의 형태적 특성만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광활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형태의 드러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본인이 바라본 일상의 역설적인 단조로움을 의미한다. 어디에 선가부터 시작되고 있는 선의 정렬 안에서 삭막하리만큼 단순한 색감과 이미지들의 조합은 본인이 일상에서 느꼈던 감정을 토대로 본인만의 일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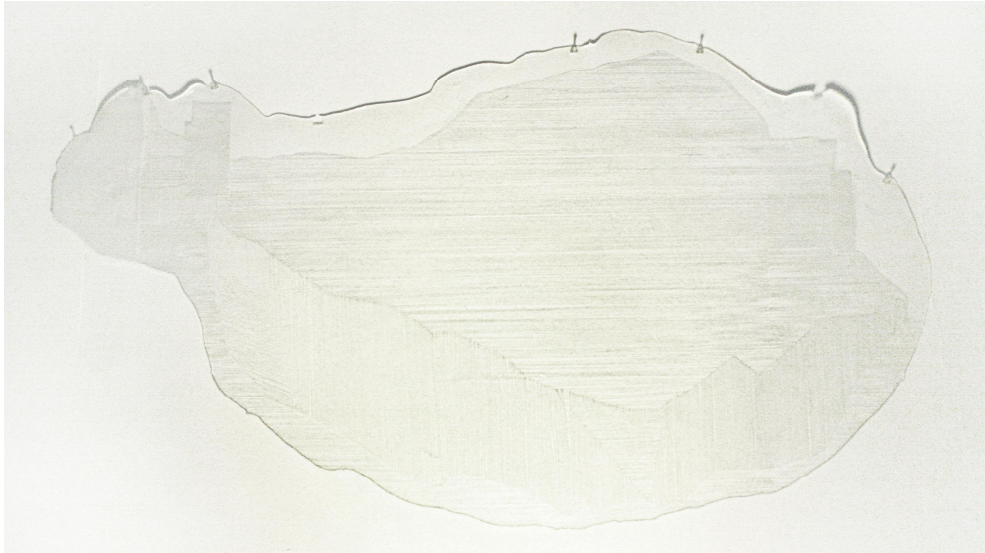
본인의 작업은 ‘실 판(版)’을 기반으로 시작된다. 화면의 전면이든 일부든 ‘일상’을 상징하는 실의 패턴이 존재한다. 이는 본인이 일상이 패턴으로 구성된다고 느꼈던 특성과 의미를 같이하며, 곧 판(版) 제작부터 완성까지의 작품 전반의 과정 역시도 본인이 짚어내는 일상의 패턴인 것이다.

일상의 단면은 단조로움과 적막함으로 드러난다.

2) 떠냄과 찍어냄

본인의 ‘실 판(版)’은 일반 접착제로 고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의 판화기법의 형식으로 잉크를 입히고 프레스를 거쳐 인쇄하게 될 경우 에디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하지만 본인의 ‘일상’은 패턴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것이 견고한 패턴이 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일상이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따라서 본인 작품들의 에디션 넘버(Edition Number)는 대부분 ‘5’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판(版)의 특성상 에디션의 인쇄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는데 이는 새로운 판법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게 했다. 그중

한 가지가 실리콘(silicone)¹⁶⁾을 이용한 방법이었다.



[도판 3] 조각섬 , 159x88cm, collagraphy on silicon, 2015

[도판 3]은 실 판을 자르고 붙여서 만들어낸 ‘섬’을 형상화한 것을 실리콘으로 떠낸 본인의 작품이다. 직접 제작한 판에 실리콘이라는 소재의 사용을 시도한 첫 작품으로 실리콘이라는 재료가 주는 특성과 인쇄된 실 판의 질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실리콘을 ‘실 판’으로 구성한 이미지 위에 얇게 펴고 굳힌다. 이 간단한 방법이 실리콘을 이용한 판(版) 인쇄의 방법이다. 주제(主劑)에 적정량의 경화제를 골고루 섞어서 사용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 굳게 되는 원리다. 본인은 실리콘 중에서도 [도판 3]과 같은 투명한 색상을 사용하는데 뒤편

16) silicone(s) 오르가노폴리실록산류의 총칭. 기름, 고무, 수지 등 각종 성상을 가진 것이 있으며, 각각 실리콘유, 실리콘 고무, 실리콘 수지 등이라고 불리고 있다. -세화 편집부, 「화학대사전」, 세화, 2001

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보이기 때문에 공간감을 활용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실리콘이 완전한 투명이 아니라 약간의 불투명함을 띄는 것이어서 마치 창문이나 커튼의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의 화면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미지와 공간의 중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변화의 방향이 다양했다.

실리콘과 유사한 성질의 또 다른 소재는 무 발포 우레탄수지(urethane resin)¹⁷⁾가 있었다. 실리콘은 그 자체로 버티는 힘이 없어 판(版)을 떠낸 이후에 유지할 방법이 필요했다. 실리콘끼리는 경화 후에도 재가공시 서로 붙는 성질이 있어서 작품의 뒷면에 천을 덧대고 실리콘을 다시 부으면 천의 미세한 틈새로 실리콘이 파고들어 고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거친 천을 펼쳐서 캔버스 틀이나 판넬에 부착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러나 실리콘의 뒤로 비치는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투명한 실리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도에 거슬리지 않게 고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고정을 위해 사용하는 천이 불투명하거나 색을 가진 경우에 그를 거쳐서 보는 공간에 방해요소가 되었고, 고정하고자 하는 것이 캔버스 틀과 같이 분명한 외곽을 가질 경우에도 역시 그러했다. [도판 3]의 작품의 경우 그것의 고정을 철판의 벽에 자석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그 방법 역시도 제한적이었다. 자석이 붙는 벽이 어야만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리콘의 크기가 커지거나 두꺼워졌을 경우 자석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거나 혹은 버티더라도 그만큼의 자석 개수가 더 늘어나야 했고, 그것은 곧 작품의 이미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재료가 우레탄 수지였다. 우레탄 수지가 판을 떠내는 방식은 실리콘과 유사하지만 굳으면 딱딱해지는

17) urethane resin 우레탄 결합(-NH-CO-)을 갖는 합성고분자. 예를 들면 디이소시아산에스테르와 글리콜을 부가중합시켜 제조한다. 저온단열용 발포, 레토르트, 복합필름(라미네이트)용 접착제로 이용한다.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이라고도 한다. - 채법석, 김을상, 「영양학사전」, 아카데미서적, 1998

성질이 있어 굳힌 이후에 단독으로 형태가 유지 되었다. 하지만 실 판(版)에 직접 부어서 굳혔을 경우 실 판(版)이 떼어내면서 찢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을 실 판에 부어 먼저 실을 떠낸 후에 떠낸 실리콘에 우레탄 수지를 붓는 방식으로 에디션을 낼 수 있었다.

실리콘이나 우레탄 수지를 이용한 작업은 기존의 판화기법에서 프레스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재료 자체가 판(版)에 파고들어 찍어내는 방식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간접적으로 이미지가 나오는 결과물이나 에디션을 낼 수 있다는 점, 본인이 제작한 판(版)을 기반으로 작품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확장된 판화의 기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화는 ‘판’ 위에 이미지를 제작하고 찍어내는 간접성, 다수제작이 가능하다는 복수성, 그리고 판화만의 독자적 아름다움인 고유성의 특성을 가진다.¹⁸⁾ 하지만 이 판 법들은 프레스(press)의 한계로 물리적 크기나 매체의 다양화를 하는 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본인은 이러한 고민을 자체적인 판의 제작과 새로운 소재의 활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실재하면서도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우(宇)이고, 길이가 있으면서도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주(宙)다.” 여기에서 ‘우’는 공간으로서, 실체적인 존재는 있지만 최후의 끝이 없음을 가리킨다. ‘주’는 시간으로서, 연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작도 끝도 없음을 가리킨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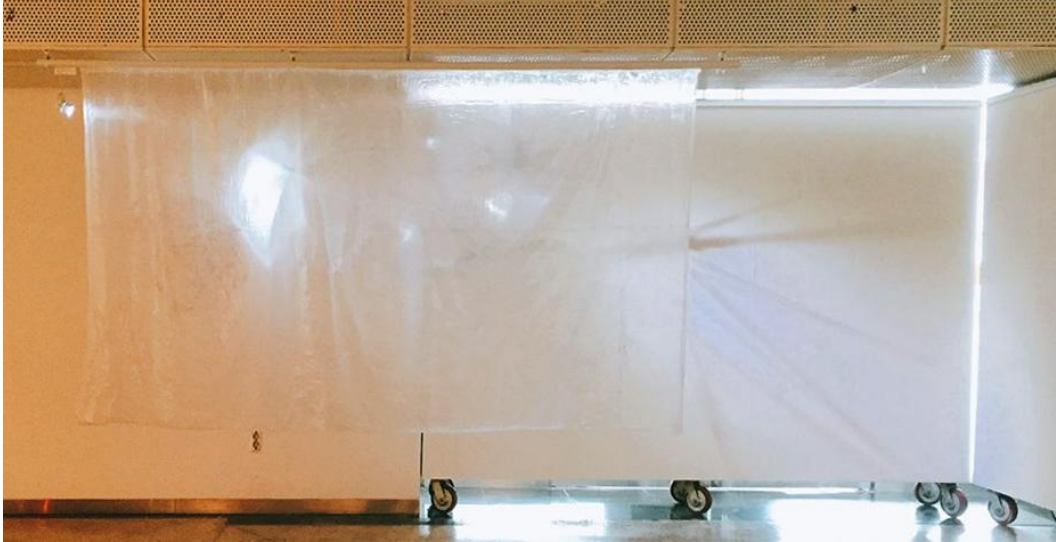
본인의 일상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매번 그 순간들이 눈앞에 있다. 그러나 실체는 없으므로 그것의 반복됨은 본인의 의식에서만 존재한다.

18) 김용식,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現代版畫의 動向」,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1995, p.7

19) 쉰치서, 왕치빈 외 저, 김원중, 황희경 외 역, 「동양을 만든 13권의 고전」, 상하이문예출판사, 2011, p.135

의식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본인은 이러한 일상의 패턴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시각화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광활한 시간에서 주체로서 일상을 쌓아가는 순간의 상징과 그것을 초연함을 통해 객체로서의 시각으로 바라본 형상을 결합하는 과정으로 시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작품분석



[작품 1] Through rout-ain, 160x210cm, collagraphy on silicon, 2016(전시전경)



[작품 1] 전시전경 (후면)

[작품 1] Through rout-ain

160x210cm, collagraphy on silicon, 2016

[작품 1]은 투명한 실리콘을 사용해 제작한 커튼 형태의 작품에 실제 오브제를 함께 배치하여 공간을 활용하고자 시도한 작품이다. 실리콘이 투명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뒷면의 공간에 일상의 상징인 우산을 위치시키고, 빛을 더해 그림자가 형성되게 함으로써 공간감을 주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작품의 제목인 rout-ain은 생활의 반복을 뜻하는 routine과 커튼(curtain)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의미의 결합을 뜻한다.

본인이 설정한 일상의 상징인 ‘실’의 패턴을 판으로 사용해 그것을 떠낸 실리콘을 커튼처럼 만들어 매달아서 늘어뜨리고, 그 뒤편에 일상적 사물 이면서 본인에게는 구조적이고 정적인 상징적 의미의 오브제인 우산을 배치하였다. 투명 실리콘이긴 하지만 완벽한 투명보다는 불투명한 유리창의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뒤에 배치한 오브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한 빛이 필요했다. 따라서 밝은 빛을 주기 위해 조명을 커튼봉 전면에 위치시켰고, 빛을 받은 우산과 우산살이 어렴풋이 보이도록 하였다. 총 세 개의 우산은 허공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회전하는 모양으로 보이도록 위치시켰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움직임 의미한다. 동시에 그림자를 커튼의 면적보다 더 넓게 퍼지게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본인의 개념적인 일상을 상징하는 커튼과 그 너머에 비치는 실제 일상적인 사물, 그리고 빛을 통해 만들어져 본인의 일상(커튼,우산)보다 더 넓게 자리 잡은 그림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명확하진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의 상징으로 본인의 패턴을 활용해 만든 커튼을 선택하였고, 그 안에 순환하는 일상을 의미하는 실의 패턴과 함께 실리곤 너머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곧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과 일상이라는 상징물인 커튼 너머에 존재하는 오브제는 실재하는 일상적 사물이면서 동시에 본인의 개념적인 의미를 담은 우산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시간이라는 현상과 그 안에서 순환하는 일상의 공존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본인이 만들어낸 일상의 패턴이 커튼이라는 형태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나치는 하나의 창, 또는 하나의 전환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뒷면의 공간의 활용을 시도했다. 커튼과 우산은 각각 일상을 상징하고, '빛'을 통해 두 일상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형태로 보이게 하면서 그림자를 실리곤 커튼보다 넓게 퍼트려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입체적인 일상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즉 커튼과 우산, 그리고 빛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림자까지도 본인이 생각한 '일상'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시간'이라는 현상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튼은 일상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물로 존재하며 늘어진 실리곤의 외곽은 본인이 느꼈던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라는 현상적 제한을 상징하고 그와 같은 선상에 존재하는 우산과 우산살은 실재하는 일상을 의미한다. 실재하는 일상은 본인이 설정한 커튼이라는 일상의 창과 함께 볼 수 있다. 또한 커튼보다 넓게 퍼져있는 그림자는 프레임을 벗어나 더 크게 드러나지만, 실체는 여전히 '일상' 안에서 존재한다.

[작품 1]은 평면으로 구성되던 그간의 작품과 다르게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고 실제 사물을 개입시킴으로써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이전에 실리곤 소재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가졌던 디스플레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커튼이라는 하나의 사물로 제작해 디스플레이도 커튼의 형태로 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전시 방안을 모색한 작품이다.



[작품 2] 傘, 65x215cm, collagraphy, monotype on paper, 2016
 65x110cm, collagraphy, chin colle on papaer, 2016



[작품 2] 부분



[작품 2] 부분

[작품 2] 傘

2 piece

65x215cm, collagraphy, monotype on pap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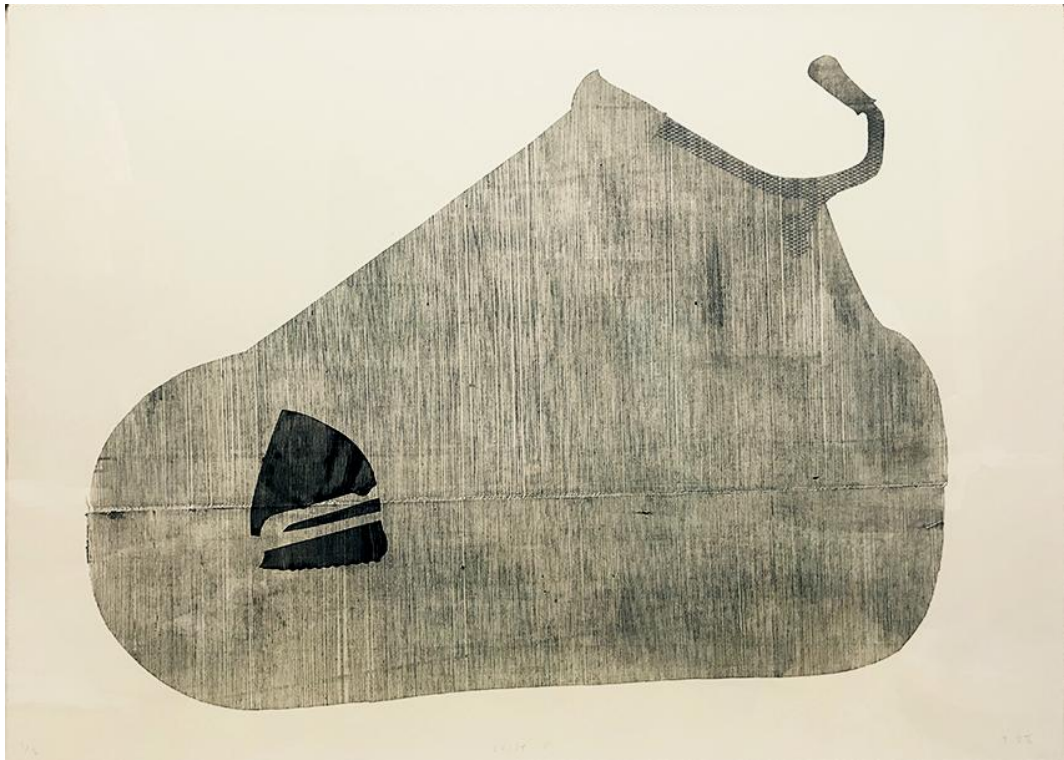
3 piece

65x110cm, collagraphy, chin colle on papaer, 2016

본인은 실 판의 크기를 세로로 길게 늘어뜨린 실 패턴과 우산의 조합이 하나의 기둥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작품에서 건축물의 형태로 제작하고자 시도하였다.

고대 건물에서 조각의 부분은 그 시대 조각의 양식을 대변하면서 조각가의 작품이고 또한 기둥의 완성을 결정짓는 부분이었다. 본인은 예술 양식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둥의 조각 부분에 우산의 형태를 위치시켰는데, 본인이 주체가 되어 쌓아낸 일상(실)에 구조적 특성을 가진 우산의 실루엣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본인이 일상을 구조적으로 완성 지었음을 의미한다. 즉, ‘우산’ 과 실 판의 형태 결합을 통해 본인의 일상이 마치 고대건물의 기둥과 같이 구조적인 형태로 완성시켰다는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배치하는 형식을 착안하였는데, 이는 기둥을 기점으로 그 너머의 공간에 더 거대한 건물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인의 개념적인 일상인 실의 패턴이 흘러내리듯 존재하고, 이것의 끝에 위치한 상징적 형태의 우산이 이 일상을 구조적인 기둥으로써 완성을 끌어낸다. 동시에 그 기둥들은 더 거대한 공간에 위치한 건물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상’ 이라는 소재들로 구성된 상징적인 구조물을 연상시키고자 함이다.



[작품 3] cycle II, 110x80cm, collagraphy, silkscreen, stencil on pap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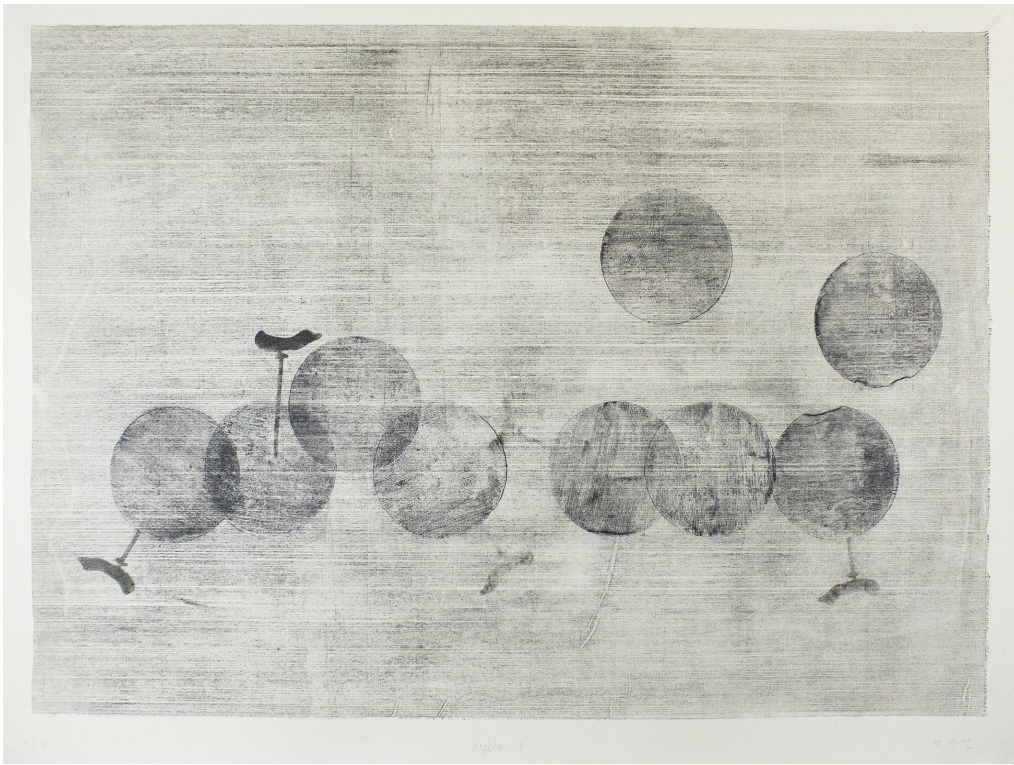
[작품 3] cycle II

110x80cm, collagraphy, silkscreen, stencil on paper, 2016

본인의 작업은 ‘실’의 정렬이 이룬 패턴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 패턴은 본인이 만들어낸 일상의 이미지며, 작업 전반에서 본인을 대변하며 등장하는 소재이다. 그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고, 그것은 곧 본인이 바라본 일상은 일률적이지만 동시에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의 변형은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3]은 실로 만든 판을 자전거의 형상으로 오려서 찍어내고, 바퀴와 핸들의 위치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전체적인 형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바퀴의 부분에 스텐실(stencil)의 기법으로 일부분을 채색해 주었다. 본인이 부여한 상징물로서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자전거는 본인의 실로 형상화되어 고정된 형태의 정물로 존재하고, 순환을 상징하는 동그란 형태의 바퀴에는 그것의 움직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바퀴살’의 움직임을 포착한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면으로 뭉뚱그려져 불분명해진 형태에 실크스크린(silk screen) 기법을 활용하여 핸들의 형상을 드러내 전체적으로는 ‘자전거’라는 사물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자전거'라는 형태를 인지하고 다시 바라본 전체의 형상은 자전거가 늘어난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는 인식하기 전에 유추할 수 있었던 형상과 존재의 파악을 통해 다시 본 형상의 차이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느꼈던 일상의 면모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 4] cycle I, 110x80cm, stencil, transfer on paper, 2016

[작품 4] cycl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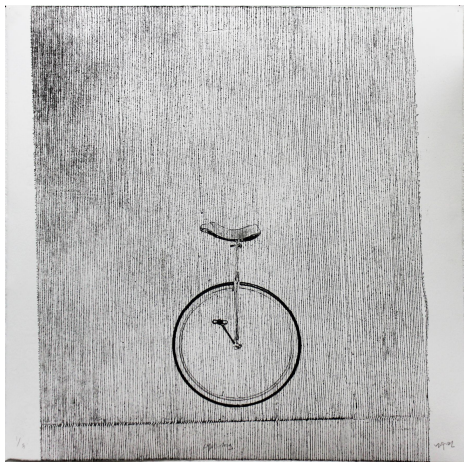
110x80cm, stencil, transfer on paper, 2016

[작품 4]는 일상을 의미하는 ‘실’의 패턴은 작품에서 배경으로 존재하고, 그 위에서 움직임을 떠올리도록 하는 형태의 외발자전거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동그라미는 본인의 개념적인 순환을 상징하며 자전거를 유추할 수 있는 형태를 더해줌으로써 그것의 회전을 연상시킨다. 외발자전거의 실루엣들은 마치 시계 침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과 순환하는 일상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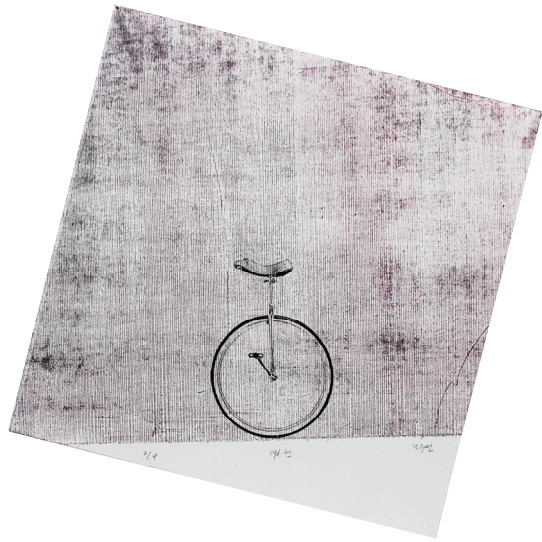
본인은 [작품 4]에서 실의 패턴을 실로 만든 판에 가루 토너를 얇게 바른 후 종이를 얹고 그 위에 락카신너(lacquer thinner)를 붓으로 발라 전사를 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사용했다. 위에 찍힌 동그라미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찍어내고 자전거의 형태는 스텐실(stencil)로 찍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처음 실로 판을 만들어 작업을 시작하였을 때의 작품은 [작품 4]의 형식으로 토너와 락카신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프린터로 인쇄한 이미지를 다른 종이에 전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루 토너(toner)를 활용한 것이었다. 인쇄물을 사용한 것과 다르게 본인이 바르는 토너는 프린터 인쇄처럼 일정하게 발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연적이고 회화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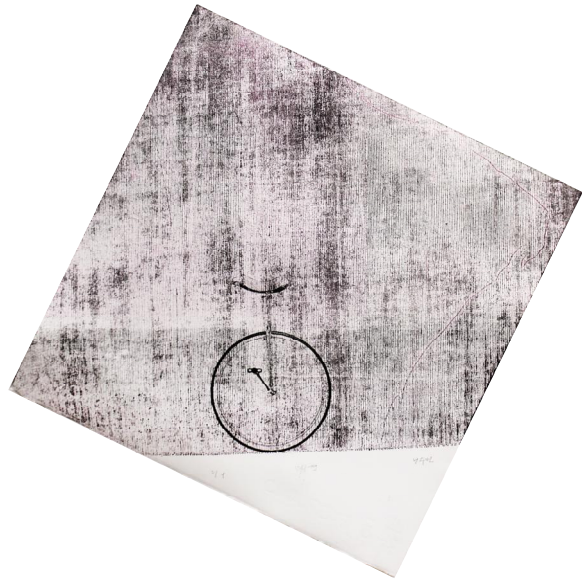
하지만 본인의 판은 접착제가 실과 붙어서 하나를 이루는 형태였고, 락카신너에는 접착제를 녹이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판 훼손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판의 훼손을 줄이면서 실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콜라그래피(collagraphy)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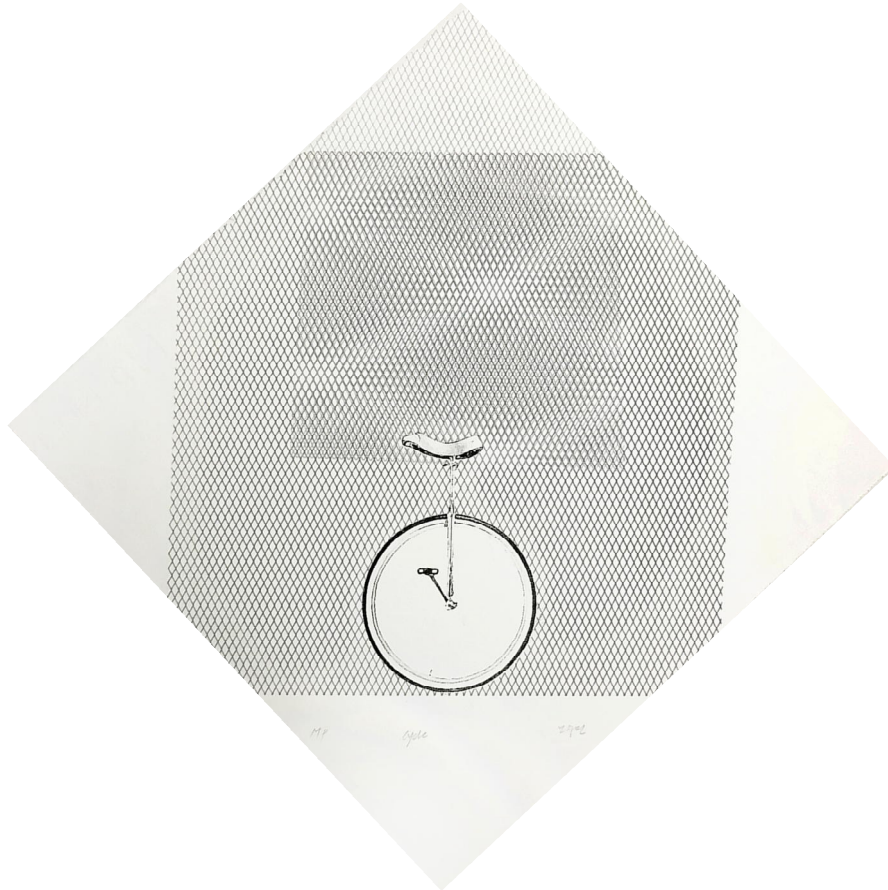
[작품 5-2] cycl-ing II
35x35cm, collagraphy, transfer on
paper, 2016



[작품 5-1] cycl-ing
35x35cm, collagraphy, transfer on
paper, 2016



[작품 5-3] cycl-ing III
35x35cm, collagraphy, transfer on paper,
2016



[작품 6] rhombus circle

35x35cm, silk screen, transfer on paper, 2016

[작품 5-1] cycl-ing

35x35cm, collagraphy, transfer on paper, 2016

[작품 5-2] cycl-ing II

35x35cm, collagraphy, transfer on paper, 2016

[작품 5-3] cycl-ing III

35x35cm, collagraphy, transfer on paper, 2016

[작품 6] rhombus circle

35x35cm, silk screen, transfer on pap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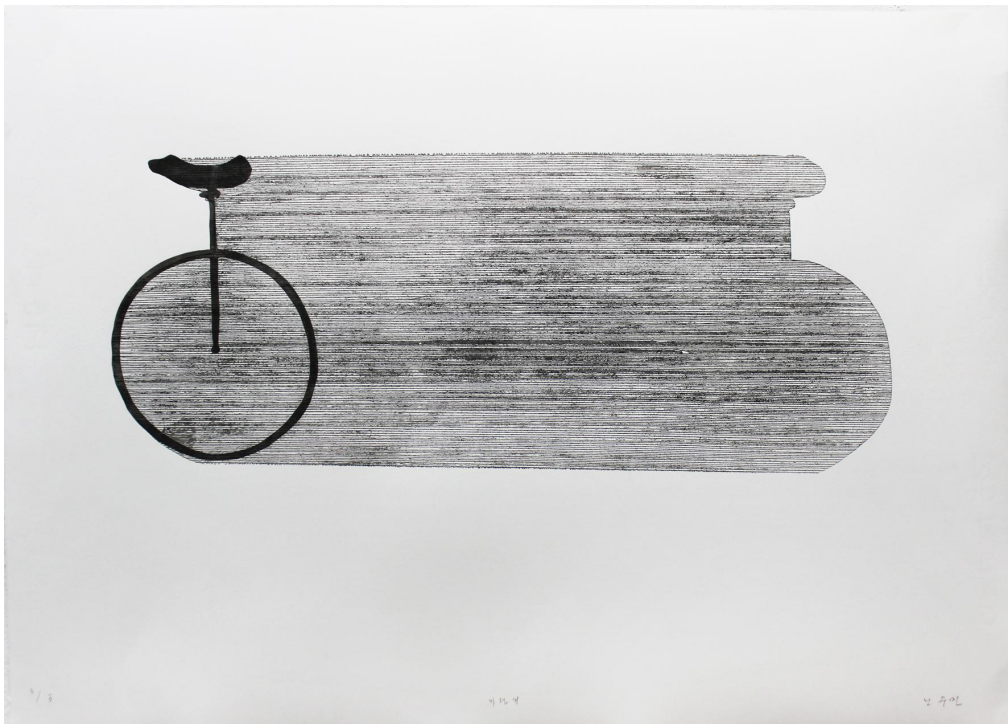
[작품 5] 시리즈는 [작품 6]과 함께 고정된 자전거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일상’의 상징인 실의 패턴과 함께 작품 각도 자체를 회전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정렬된 실이 주는 정적임과 시간과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자 한 시도이며, 프레임 각도의 회전을 통해 정형화되어있는 사각의 틀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작품 5] 시리즈는 본인의 개념적 일상인 실 패턴이 세 작품 전부에서 수직이라고 설정하고, 그로 인해 사각의 틀인 작품이 저마다 다른 각도로 비틀어지게 의도한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덩그러니 존재하는 외발자전거역시 본인이 설정한 순환의 상징이며, 본인의 개념적 일상과 공존하는 존재이다. 본인에게 ‘일상’은 정적이고 단조롭지만 동시에 일상은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된다. 그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멈춰있는 느낌이 들도록 외발 자전거와 실 판의 패턴을 구성하였고 작품 프레임의 회전은 그림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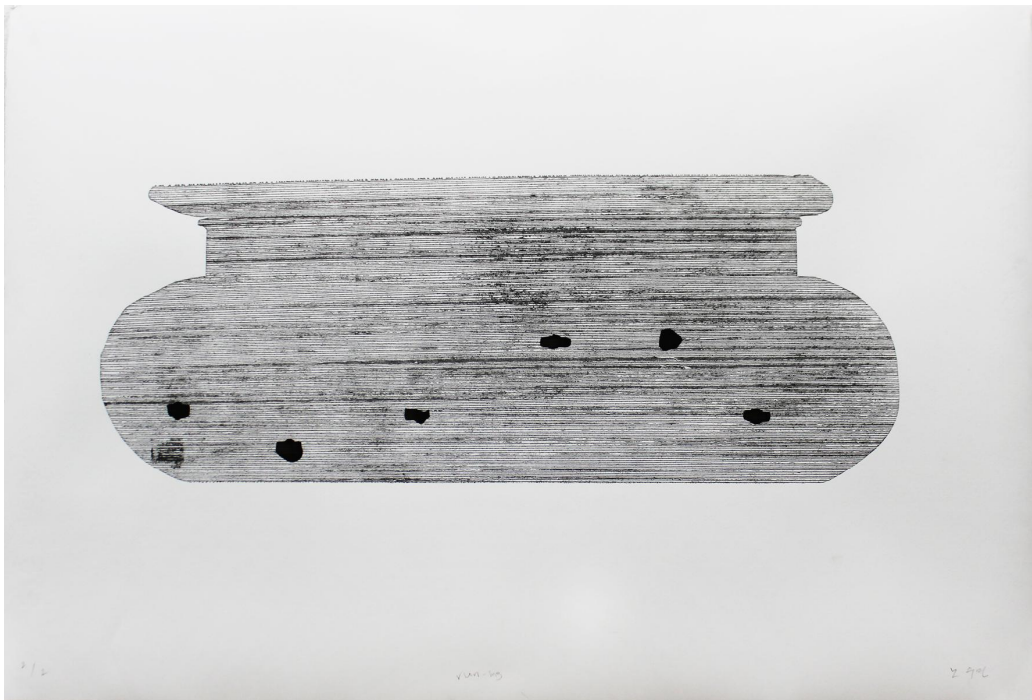
본인이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의 간격이나 접촉제 두께의 차이는 콜라그래피로 찍었을 때 작품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되고, 이는 본인이 생각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차이를 의미한다. [작품 5] 시리즈는 같은 의도로 하나의 시리즈로 제작하였지만, 실 판의 차이가 만들어진 각 작품의 차이는 본인이 느꼈던 ‘일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작품 6]은 본인이 실로 판을 만들기 이전에 시도했던 ‘철망’의 이미지를 실크스크린으로 찍어내던 것을 이용한 작품이다. 철망의 균일한 패턴은 본인이 일상을 단순한 패턴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시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작품 초기의 것으로 본인이 ‘실’을 이용하게 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6] 역시 하나의 외발자전거가 존재하는데 이 자전거 역시 순환하는 ‘시간’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또한 콜라그래피를 통해 찍어낸 [작품 5] 시리즈와는 달리 철망 패턴의 형태가 작품 프레임의 각도와 외발 자전거를 부각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는 자전거의 바퀴와 프레임 각도의 회전이 시간의 순환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의도한 것이다.

이들 작품은 전반적으로 틀에 위치한 액자를 최대한 작품과 하나처럼 보이도록 밝은 미색의 색감을 띠게 제작하였고, 마치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을 포착한 것처럼 작품 프레임의 각도를 비스듬하게 또는 온전히 대각선으로 회전하였다. 바퀴의 형상이면서 회전을 연상하기 더 쉽도록 작품 자체를 원형의 형태로 제작할 수도 있었지만, 프레임은 본인이 일상이라는 패턴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직선의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원형이 가질 수 있는 반지름이라는 요소를 대체하기 위해 정사각형의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들의 각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회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7] 자전거, 70x50cm, collagraphy, monotype on paper, 2016



[작품 8] run-ing, 70x50cm, collagraphy, stencil on paper, 2016

[작품 7] 자전거, 70x50cm, collagraphy, monotype on paper, 2016

[작품 8] run-ing, 70x50cm, collagraphy, stencil on pap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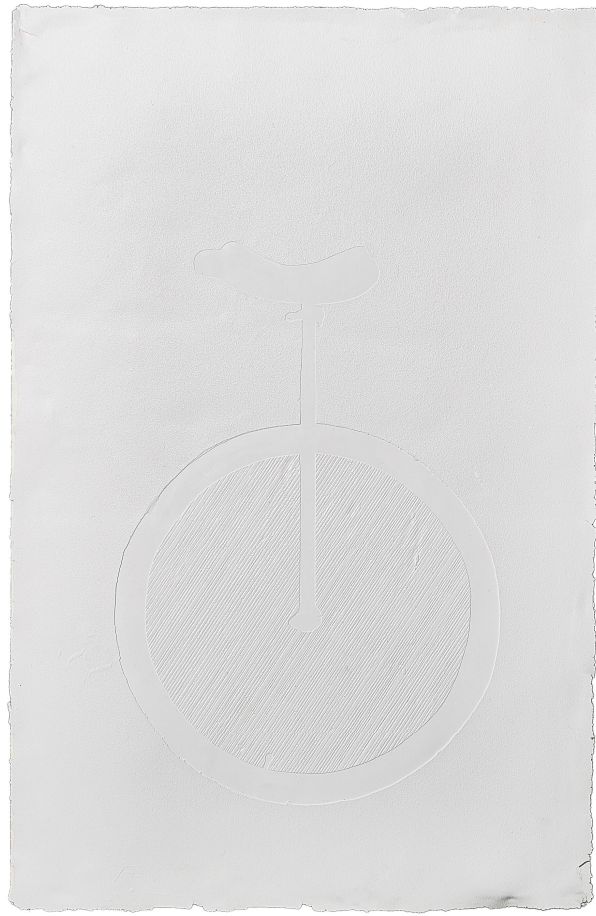
[작품 7]과 [작품 8]은 하나의 자전거의 형태를 일렬로 나열하듯이 늘어 놓아 하나가 길게 늘어난 형태로 판을 잘라내고 자전거라는 사물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는 실루엣을 찍어냈다.

[작품 7]은 온전한 외발자전거의 형태를, [작품 8]에서는 움직이는 자전거 페달의 형태를 찍어낸 것이다. 이 또한 [작품 4]를 비롯해 [작품 5]와 [작품 6]의 형태를 시작으로 움직임을 내포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본인의 일상은 일률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일상이 단조롭고 정적인 느낌을 주는 패턴을 양산하게 되었고 그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정체되어 있거나 삶의 형태가 멈췄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본인은 실의 정렬로 구성된 패턴의 단순한 이미지와 함께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는 변형을 통해 작품 내에서의 환기를 주고 싶었다. 일상은 정적이지만 시간이 흐르듯 그 안에서 멈춰있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처음 [작품 5],[작품 6]과 같은 방법으로 작품의 각도를 비트는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을 줌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작품인쇄 방식이나 크기에서 한계가 있었고, 제한적인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움직임이라는 변화를 화면 안에서 이미지를 통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

었고, 그 과정에서 [작품 7]과 [작품 8]과 같은 형태를 착안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이 주는 이미지는 단조로우면서 정적인 분위기를 가지지만 그 안에 움직임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줌으로써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일상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일상이 계속되는 것과 같이 여전히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9]



[작품 9 전시 전경]

[작품 9] circling(5 piece)

3 piece 28x43cm, collagraphy on silicon, 2016

2 piece 28x43cm, collagraphy on urethane resin, 2016

[작품 9]는 실리콘과 우레탄수지를 활용해 이미지를 일정하게 떠내는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은 총 5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작품은 백색의 실리콘 두 작품은 미색의 우레탄 수지로 제작하였다.

작품 내의 이미지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는 외발자전거이며 본인의 패턴은 자전거 바퀴 부분에서만 각도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 ‘움직임’을 드러낸다. 이 또한 작품 내 환기를 주는 시도의 연장이며, 작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는 작은 차이는 일상 역시도 시간 안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바퀴의 움직임은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모양으로 각도의 변화를 주었다. 그것은 바퀴를 벗어나지도 않고 패턴의 간격이 일정하지도 않다. 그저 닳아있는 패턴이 바퀴의 프레임 안에 위치하고 그 움직임 역시 각도가 달라질 뿐, 닳았긴 하지만 그것이 같은 형태가 아니다. 이것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일상의 순환이고 그것을 시각화하고자 한 것이다. 즉, 매순간 새롭게 맞이한 일상의 축적을 훑날 돌아보았을 때 그것의 새로움은 미세한 차이일 뿐이었다는 의미이다.

우레탄은 딱딱하게 굳고 실리콘은 고정매체가 없으면 접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본인은 재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종이 작품들과는 다르게 허공에 살짝 떠 있는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였는데, 이것은 작품을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보았을 때 그 소재의 특징을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동시

에 액자라는 프레임이 있어야 작품과 벽의 공간이 더 두드러지고 그만큼 소재의 느낌을 발견하기 쉬웠으므로 존재감이 최소화된 형태의 액자와 투명한 아크릴판을 배경으로 한 액자를 선택하였다. 작품의 외곽은 판화지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찢어진 종이의 형태로 떠냈는데 이는 새로운 소재를 직접 드러내기보다 실제 가까이에서 작품을 접했을 때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판화지를 연상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판화작품이 주는 분위기를 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소재가 주는 질감의 차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인은 각 작품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열하였는데, 이는 미세한 움직임의 포착을 담은 작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컷을 나누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차용한 것이다.

Ⅲ. 결 론

본인은 ‘일상’이라는 현상에 집중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일상을 바라 보게 되었고, 이를 시각화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바탕으로 작품을 진행했다. 본인이 발견한 일상은 단조롭고 막연하게 순환되고 있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사하고, 시작점은 있었으나 그 이전부터 닳아있는 반복이 있었으며 또한 그것의 끝은 알 수 없었다. 동시에 일상이라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의 전환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고 ‘삶’이라는 인생의 논제에 ‘일상’이라는 패턴이 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상징적 요소들과의 조합을 통해 이를 조형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한 것이다.

본인에게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일상’이라는 논점을 향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의 반복적인 현상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다. ‘일상’은 단조로운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순환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를 시각화 하는 수단으로써 ‘실’을 차용하게 되었다. ‘실’이라는 소재는 설화에서 비롯된 ‘생(生)’과 ‘연(緣)’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본인의 작품에서는 일상이라는 자연적 현상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실은 그 자체로 ‘삶’ 상징물이고, 본인은 작품에서 그것을 다루는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본인은 ‘일상’이라는 현상을 ‘실’을 이용한 패턴으로써 시각화하고자 하였고, 그것의 상징적 의미와 사고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실 판’이라는 패턴을 통해 주체의 존재를 드러내고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에 상징의 의미를 부여해 그것의 역할과 작품 안에서의 조

화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생각과정을 설명하였다.

‘실’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를 감는 행위부터 본인이 주체가 되어 ‘일상’이라는 반복적 시간을 상징하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일상을 의미하는 실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일상을 영위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일상의 모양은 단조롭고 일정한 반복임을 의미하는 정렬된 패턴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패턴이 주체에게서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한걸음 물러나 바라본 지난 일상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한 의도이다. 즉, 시간 안에 소속되어 본인은 일상을 점으로 찍고 선을 긋는 반복을 통해 결국 면을 채우고 있으나, 본인이 훗날 그 흔적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의 단면은 마치 본인의 실 판과 같은 단조로운 선의 집합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은 ‘일상’이라는 패턴이 자연적 현상임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것에 체념하고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하고 성찰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인은 일상을 의미하는 ‘실 판’을 지속해서 응용하며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는 실의 특성이 가지는 연약함이 판(版)으로 만든 이후에도 여전히 인쇄의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실리콘과 우레탄 수지를 사용한 에디션을 내는 방안을 모색했고, 이는 판화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본인이 의도한 적막하고 단조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써도 적합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그 재료가 친숙하지 않아서 겪었던 응용의 어려움에 아쉬움이 남는다. 본인은 앞으로 지속적인 실험을 병행해 더 다양한 방면으로의 응용을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은 ‘일상’을 비롯해 ‘삶’이라는 논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정리,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며 본인의 사고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본인은 연구를 진행하며 정리된 견해와 그 새로운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품의 주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동철, 최진석, 신정근, 「21세기의 동양철학」, 을유문화사, 2005
- 김지영, 김문진, 「규방공예: 오방색실과 천으로 잇는 천년세상」, 컬처라인, 2000, p52
- 장자, 「내 안의 나를 깨우는 장자 [2] 외편」, 일상과 이상, 2017
- 쭈치시, 왕치빈 외, 「동양을 만든 13권의 고전」, 상하이문예출판사, 2011
- 차기태, 「미술작품을 곁들인 에피소드 서양문화사」, 필맥, 2014
- 임병주, 「소설로 읽는 그리스 로마신화 2 운명의 힘」, 21세기북스, 2013
- 오츠이치, 「실종홀리데이」, 학산문화사, 2015
- 랜디 알콘, 「악의 문제 바로알기」, 두란노, 2011
- 신노운, 「연애의 각인」, 로맨스스토리, 2014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사랑, 2000
- 강동수, 배상식, 「일상에서 철학으로」, 소강, 2013
- 김기전, 「일상생활의 의식적 건축」, 實生活, 1936
- 마이자(MY_JA),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상업 일러스트」, 도서출판 길벗, 2015
- 미하엘 비트쉬어, 「철학 오디세이 2」, 현실과 과학, 2006
- 진회숙, 「클래식 오디세이」, 청아출판사, 2014
- 김용식,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現代版畫의 動向」,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1995

ABSTRACT

Researching images of everyday life through repetition and circulation

– Focused on my works –

Soo Min, Noh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 began to look at everyday life starting from the moment when I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everyday life' and proceeded with various attempts to visualize it. The daily life I discovered was monotonous and vague circulation. There was a similar but not perfect match, there was a starting point, but there was a similar repeat from before and also the end of it was unknown. At the same time, I realized that it was not possible to escape the pattern of everyday life. I want to solve this situation through the conversion of consciousness and to escape from the sense of helplessness given by the pattern of 'daily life' in the theme of life called 'life'. In addition, it aims to visualize it in a formative way by

combining with symbolic elements.

At the time of the change of perception from the self, I focused on the repetitive phenomenon of everyday life based on the analysis for the issue of 'everyday'. 'Daily life' is circulating repeatedly in a monotonous shape, and I have borrowed 'thread' as a means of visualizing it. The material called 'thread' is accepted as a meaning of 'life' and 'relationship' derived from folktale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material that represents the natural phenomenon of daily life in my work. The story itself is a symbol of life, and I exist as a subject in my work.

Based on this aspect, I tried to visualize the phenomenon of 'everyday' as a pattern using 'thread' and described its symbolic meaning and thinking process. In addition, it reveals the subject's existence through the pattern of 'thread plate' and gives the symbolic meaning to objects that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and studied its role and harmony in the work and explained the thought process.

From the act of wrapping up a very ordinary material called 'thread', I become a subject, creating a pattern symbolizing repetitive time of 'daily life' and symbolizing the fact that I lead daily life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a pattern of. The shape of everyday is revealed as an ordered pattern, which means that it is monotonous and constant repetition. It is intended to contain the

meaning of the pattern of everyday life that the pattern comes from the subject, but at the same time step backward. In other words, I belong to the time and I fill the face through repetition of drawing a line and drawing a line of daily life, but when I look back at the trail later, its cross section looks like a set of monotonous lines It can be seen. I understand that the pattern of 'everyday life' is a natural phenomenon, and at the same time I want to reveal that it exists as a leading subject that constantly attempts and reflects not on being resigned and conforming to it.

I have continued to apply 'thread plate', which means daily life, and have studied new techniques. This was followed by the difficulty of printing even after the weakn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ad was made into plates. So I looked for a way to make an edition using silicone and urethane resin, which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approached from a new direction. It was possible to utilize it as a suitable material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the intentional despair and monotony, but it is unsatisfactory for the difficulty of the application which is experienced due to the unfamiliarity of the material. I will continue to experiment and study applications in a variety of ways in the future.

Through this study, I was able to organize and analyze the viewpoint of 'life' as well as 'everyday life'. Based on this analysis, I was able to understand my thinking process more deeply. I will

continue my research in various ways in order to expose my presence as the subject of the work based on the organized opinions and the new possibility.